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얼마 전 평양에 사는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다른 계정에 올린 영상이 영어로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담았다. 북한의 신종 대외 선전물이라고 판단된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각종 SNS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존한다. 이 중 유튜브는 수천·수만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SNS 양식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북한의 선전 매체도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선전 콘텐츠를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북한의 각종 출판물은 특수자료로 별도 취급해 왔다. 물론 우리 언론은 조선중앙통신과 계약을 맺어 관련

변화하는 북한의 대외 선전

기사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으며, 학술적인 목적 등으로 북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리는 북한 관련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를 열면 나오는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 같아서 혹은 호기심에서 보는 클릭 행위에 이적성 여부의 잣대를 들이낼 수 있을까? SNS의 특성상 누가 올렸는지 알 수도 없고 콘텐츠물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관련 SNS 양식이 되었다. 특히 모든 유튜브나 SNS 콘텐츠는 공유자와 구독자들의 댓글과 같은 평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북한 콘텐츠가 특별히 취급될 이유가 없다. 북한 선전물 역시

온라인상에서 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유튜브 콘텐츠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 관련 기구 역시 자극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선전물을 올릴 경우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가짜 뉴스는 분명히 규제되고 걸러져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생산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올리면 구독자들은 이를 전파시킨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이동하거나 삭제한다. 이러한 SNS의 특성을 악용한 가짜 뉴스들은 사회를 쪼먹는 좀비와 같은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가짜 뉴스는 우리의 안전보다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의도된 세력이나 집단들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불비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북한 인터넷 선전물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 최근 흑인 용의자를 사냥케 한 미국 경찰의 과도한 조치를 담은 동영상도 일파 파장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 인종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1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은 생활고에 따른 튀니지의 한 젊은 청년의 분신 영상으로 촉발되었다. 온라인상에 올린 동영상 하나가 개인적인 삶 뿐 아니라 국가 구조와 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영상을 올리는 개인 혹은 집단이나 이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보는 시민들이 정보의 인포데믹(info-demic) 현상 속에서 비판적 독해능력(media literacy)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미 200~300만 명이 넘는 휴대전화기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 방송이나 언론사의 표정과 옷차림, 말투와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을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경우 이번 유튜브와 같은 선전물을 앞으로 많이 유통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직은 통제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는 공동체적 방식을 통해 평화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종교칼럼

한 몸, 두 머리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어느 바닷가 숲속에 머리가 둘 달린 꿩이 살고 있었다. 이 꿩은 몸은 하나였지만 각각 다른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달랐다. 이를테면 한쪽이 잘 때, 다른 한쪽은 깨어 있었다. 어느 날 한쪽이 자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이 바다를 걷고 있었다. 그때 파도에 떠내려 온 맛있는 과일 하나를 발견했다. "혼자 먹을까? 깨워서 같이 먹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같은 몸이다. 내가 혼자 먹더라도 결국은 같은 몸의 피가 되고 살이 될 텐데 자는 애를 굳이 깨워서 먹일 필요는 없겠지." 그리고 혼자서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 다른 쪽 머리가 잠을 깨어 이쪽 머리 혼자서 과일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몹시 화를 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한 몸이니깐 나 혼자 먹어도 너한테 이로운 거야." "뭐라고? 핑계는 좋구나." 다른 쪽 머리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이번에는 다른 쪽 머리가 깨어 있다가 바닷가에 밀려온 이상한 과일을 발견했다. 그 과일은 모양도 이상하고 냄새도 고약했다. '이건 독이 든 과일이 분명해. 전에 내가 나를 무시하고 맛있는 과일을 혼자 먹었지? 그러면 내가 독이 든 과일을 먹어서 너에게 해롭게 할 테다.' 다른 쪽 머리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 과일을 구역구역 삼켰다. 얼마 후, 머리가 둘 달린 꿩은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게 되었다. "저 녀석아 아프리카 독이 든 과일을 먹었는데 나까지 아프네. 아이고 배야." 후회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우리들 마음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것을 한 몸에서 나온 두 개의 머리로 비유한 이야기다. 둘 다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선한 마음'이란 나를 낳아 이롭게 하는 마음이고, '악한 마음'은 같

수록 나를 나쁘게 하는 마음을 말한다. 우리가 선하고 악한 두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빈 1891~1943)께서는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라고 했다. 선한 사람이란 그 사람에게 있는 선한 마음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악한 사람이란 악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공부법에 무슨 일이나 안이비비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을 작용하고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라는 이름의 작업(作業)을, 쉽게 말해 작업이란 영어로 'work'(일하다)라는 의미를 갖지만 '업(業)을 짓는다'는 뜻도 있다.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만을 의미하지 않고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다 일이다. 그 일이 나와 남이 서로 좋게 되도록 하는 선한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아님나 남까지 나쁘게 하는 악한 일이 있다. 그 일 가운데 좋은 일은 취(取)하고 나쁜 일은 버려야(捨) 한다. 좋은 일을

취하면 내게 복(福)이 돌아오고 나쁜 일을 취하면 죄가 돌아온다. 삶은 끝없는 선택, 취사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잘 취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마음을 표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좁은 마음을 넓게 쓰자. 전 인류의 좁은 마음을 넓게 쓰려면 바다를 보고 성천(性天)을 기르고, 대인들의 처사를 배워야 한다. 둘째,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자. 전 인류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려려면 심천(心天)에 흑운(黑雲)이 걷히고 혜월(慧月)이 솟아야 한다. 혜월이 솟으려면 생사는 거래(去來)니 해탈(解脫)을 준비하며, 인과는 주고받음(與受) 것을 알아 달게 받고 은혜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셋째 악한 마음을 선하게 쓰자. 전 인류의 마음이 악해지는 원인은 탐(貪), 진(瞋), 애(愛), 만(慢), 첨곡(瞋曲), 시기(猜忌), 질투(嫉妬)로 인하여 발생한다. 이런 마음의 표준을 각기 두고 산다면 콩을 심으면 콩이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행복을 심으면 행복이 열릴 것이고 불행은 심으면 불행이 열릴 것이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복전(福田)을 장만할 것인지 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社說

문화전당장 공석 5년째 정상화 언제쯤에나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의 수장이 사실상 5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현 이진식 문화전당장직 무대리의 후임으로 또다시 문체부 국장급 인사를 전당장 직무대리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개관 이후 전당장 선임에 나섰으나 지난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중단했다. 그동안 방선규 직무대리에 이어 이진식 직무대리가 수장을 맡아 왔다. 문제는 정부가 전당장 공모 무산 이후 전당장 선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 출범 전부터 광주 문화계와 지역민들은 전당 활성화의 첫 단추인 전당장 선임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출대한 국책사업의 핵심 기관이 새로운 리더십을 갖춰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사령탑 공백이 장기화하면 조직 불안정으로 운영 차질은 물론 콘텐츠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

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도 문화전당의 수장 공백 사태를 좌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면 적어도 그 주춧돌을 놓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기관인 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문화전당장에게는 국가기관인 문화전당과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으로부터 운영 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는 정치권과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요구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체부 국장급 직무대리로서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지역에서 문화전당장 직급을 차관 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국책사업으로 설립한 국가기관의 장을 5년째 공석으로 두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이제라도 문화전당 활성화의 첫 단추인 문화전당장 선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전한 스쿨존 주정차 '내로남불' 아닌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7여 일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1과 중2 및 초3~4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그제 광주일보 취재 팀이 스쿨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다. 특히 등교 시간 어느 초등학교 주변은 자녀들을 태우고 나온 학부모들 차량들로 가득했다. 비상등을 켜 채 교문 앞에 차를 줄지어 주차했다는 가하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두는 바람에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불과 30분 동안 이 학교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만 85대에 달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부모들의 안전 불안감이 여전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비단 이 학교에서만만이 아니라 광주 시내 대다수 학교가 마찬가지였다. 이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

쿨존 내 불법 주·정차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이처럼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스쿨존 내 차량 주정차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줄였지만 단속 카메라 설치가 더딘 것도 문제다. 광주·전남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올해 안에 카메라 260여 대와 신호등 130여 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은 5%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없는 광주 점단초교 앞 스쿨존에서 13세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부상을 입기도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초등 5~6학년을 포함해 모든 초·중·고생들이 등교하게 된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카메라 설치 등 인프라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학부모들의 사례 깊은 행동도 필요하다.

無等鼓

"숨을 못 쉬겠다" 미국에서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백인 경찰이 무력으로 눌러 질식사시킨 사건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분노는 스포츠계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선수들은 "나도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세리머니를 펼친다. 최근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도르트문트의 산초는 골을 넣은 뒤 유니폼 상의를 벗었다. 노란색 속옷에는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Justice for George Floyd)라 적혀 있었다. 정의 세리머니와 열로카드를 맞바꾼 것이다. 코로나 휴식기를 타고 리그 재개를 앞둔 유리그 축구선수들도 인종차별 항의에 나서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외치고 있다. 메시, 이니에스타, 마네, 케인, 음바페, 포그바, 반 다이크 등 스타들과 리버풀, 첼시, 뉴캐슬 구단 선수들도 한쪽 무릎을 꿇는 세리머니로 항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축구계뿐만이 아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나는 뿌리 깊은 인종차별, 유색인종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이들과

함께한다"고 선언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스탠튼-매커전-지터 등은 "당신의 피부색과 특성이 어떻게 우리는 모두 인간이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복싱 스타 메이웨더는 플로이드의 장례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했고, 인종 문제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급을 꺼려했던 골프황제 우즈도 '선을 넘은 비극'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테니스 세리나 윌리엄스와 F1 슈퍼스타 루이스 해밀턴 그리고 육상의 우사인 볼트 역시 인종차별 항의에 가세했다. 현대스포츠는 경기장 안에서의 정치적 행위로 의사표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플로이드에 대한 추모 물결 속에 국제축구연맹 FIFA는 '정의의 세리머니'를 펼친 선수들에 대해 "징계는 없다"며 오히려 지지와 박수를 보냈다. 인종차별은 정치에 앞서 인권의 문제이며 '스포츠 정신'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정의의 세리머니'. 얼마 안 있으면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나 프로축구 K리그에서도 이같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재관 편집부장 jkyou@

정의의 세리머니

기 고

코로나19의 극복을 바라며



황옥주
전 광주수필문학회 회장

방승이고 신문이고 자고 나면 코로나 19 이야기로 난리다. 사람이 저지른 무지함이 재앙을 불러와 하늘이 세계 곳곳에 흩비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지나온 역사에서 늘 그랬듯 끝내는 개일 하늘이지만 언제가 그날일지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 발병 당시 중국의 눈치나 살피던 세계 보건기구(WHO)의 한심스러운 자세가 너무 아쉬웠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도 지나 버렸다. 다정했던 나라끼리도 서로서로 문과그리를 걸어 잠그고 망가진 제집을 타리 손질하기가 바쁘다. 며칠 전 환자 치료에 지친 간호사가 거추장스러운 북장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잠깐 졸고 있는 모습이 TV를 스쳤다.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으면 그랬을

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가슴이 아렸다. 무단히 죄지는 심정이 되어 차마 바로 보기 미안해 눈길을 돌렸음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렇게 제 건강도 챙기지 못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역행하듯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기가 막힌다. 어쩌하여 신은 사람을 이리도 복잡하게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19 불감증 ... 유행가는 불야성' 얼마 전 광주일보의 톱기사다. 광주만이 이런 것 아닐 터인데, 이게 코로나 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실상이라니 놀라운 일이다. 젊은이들의 용기인가 광기인가? 마스크도 안 쓴 한 20대 대학생에게 "코로나 감염이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20, 30대는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대부분 증상도 없이 지나간다"고 했다. 과연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것인지 한심스럽다. 젊으니까 괜찮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이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것도 아니란다. 젊은 층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결과물이 속속 발표되고 있단다.

무엇보다 증상은 미약해도 전파력이 크다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설령 코로나19가 젊은이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자. 진실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한다는 점이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가 무섭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독 중의 독이다. 나 한사람의 무모한 행동이 부모 형제나 친척, 소중한 많은 이웃들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왜 못 할까? 어쩌다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는지? 젊은이들을 보면 그 나라의 미래가 보인다. 세계 지성인들의 가르침을 되새겨 볼 일이다. 최근 체코 정부가 코로나 위험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했다는 낭보가 있었다. 직황 노선 중단 조치도 해제한다고 했다. 한국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밝게 보고 있다는 의미였다. 체코처럼 판단하는 국가가 또 늘어나기를 바라지만 누구도 내일을 예단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호소를 외면하고 아직도 학생들을 불러들여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학원들이 우리를 분노케 한다. 나라

야 망가지든 말든 우리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이기적 속내가 너무 아속하다. 그뿐인가? 일부 종교 집단의 행태는 더 기가 막하다.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은 교회가 많다. 하나님의 약속이나 명령은 무겁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종교인가? 인류가 더 혹독한 재앙에 시달리기를 하늘님이 원할까?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소금이 없어 소금물 소독을 못할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을 내세운 예배가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피는 꼴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바림이 아닐 것이다. 질병으로 인한 희생은 순교도 아니다. 우선은 냉정하게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으로 눈을 돌려 봤으면 좋겠다. 공존을 위해 이기적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교문이 열리고 무탈하게 교육이 이뤄질 날을 기다리며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름다운 봉사자,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우리 국민들은 오래오래 당신들을 기억할 거라고...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대 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